

교회소식

오늘부터 1부 예배를 2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10:40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 신진식 목사가 제36회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담 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4월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가격은 135,000원(택배비 포함)이고 8월말부터 사과 5박스과 사과즙 1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일(화)은 식목일입니다.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보거나 작은 화분을 방 한 칸에 마련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요.

삿 9:7-16

오늘 식당 봉사 : 이현순 정현선 정영례 박진숙 임옥기 유병선 박종철 추현영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신영희 윤성종 최철수 한상균
 오늘설거지봉사 : 신천권사 일동
 다음주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교사
 커피 판매 봉사 : 7여선교회
 떡 대 접 : 신진식 변혜정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부활절 제2주 】

인도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세먼지 가득한 뿌연 하늘을 깨끗이 씻어줄 단비를 내려주소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잘 씻기지 않는 마음의 찌든 때들도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시오. 맑고 밝은 얼굴로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봄꽃처럼 살게 해주소서.

주님, 선거를 앞두고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을 꾸짖어 주소시오.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과 민족을 생각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남북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시오.
명분 없는 도발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찾게 도와 주소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요 17:11 인도자

♣ 교 독 문 82. 빌립보서 2장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 성경봉독 시 66:1-12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양 성령의 힘으로 찬양대

말씀 놀라운 이름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금분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강요한	원은이	고속이	공종철	구자성	곽상준	준우
최경미	구재원	김기순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명희	김미향	김성은	김성우	린자
박유경	김수진	김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김선화	김일량	김준호	김광혜	자국
김정민	이혜령	김정주	김정미	김정훈	이진영	김철수	박영남	김해선	박상욱	정국
김중현	성귀옥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전혜리	김미연	박범희	박미영	박상욱	정국
손의나	민지희	박규석	박경선	박명제	서미경	박미연	배삼순	배재정	박상욱	정국
박옥순	박옥식	박인혁	박창운	허정운	방문성	박혜은	신진식	변해선	이심상	정국
서은혜	송정근	이소선	송형운	유미주	신정훈	이은미	신계선	이소순	이심상	정국
안정숙	오슬기	오자영	송왕수	유금주	유중희	유지은	권현숙	이왕준	송상경	정국
이경희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왕준	송상경	정국
이용현	이유선	이유진	이재삼	전정현	이주영	오재영	전인섭	임주빈	최현옥	정국
장기욱	장미경	장병준	박소현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정복순	정완수	정국
김재광	정재기	조경자	주경진	이윤정	최윤화	최형소	강경화	한완성	한완성	정국
한인철	조윤숙	허성호	진은혜	허신열	홍복선	홍소	홍순	홍순	홍순	정국

감사헌금

강금분	김용진	박효선	김정진	김혜정	김철수	유영남	김향자	이소영	이왕준
송상경	이주영	오재영	임선희	전인섭	전희수	조은성	정이든	한종희	무명5

생일감사헌금

이우엘 한선희

녹색꿈헌금

변재민 이소혜 무명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문금석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임정자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송인선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김태정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허정운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이은문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김희우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마음으로 읽는 글

이천십사년사월

가슴 아픈 일들을 빨랫줄에 널어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말려라
 비곗던 맘들을 빨랫줄에 널어
 소용없는 마지막 눈물도 말려라
 모두 잊겠지만 몸이 기억하여
 이맘 때면 잠깐의 감기라도 나눠 앓아서
 사랑했고 잊혀졌던
 정말 사랑했고 이내 잊혀졌던 것에 노래를

무너지는 맘들을 도화지에 뉘어
 채색되지 않는 마음을 입혀라
 비곗던 맘들을 도화지에 뉘어
 소용없는 눈물을 닦칠하여라
 모두 잊겠지만 몸이 기억하여
 이맘 때면 잠깐의 감기라도 나눠 앓아서
 사랑했고 잊혀졌던
 정말 사랑했고 이내 잊혀졌던 것에 노래를

- 권나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가 되어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일에 대한 걱정과 한탄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힘껏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 성서 학당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박영신 집사	
	2부	김기석 목사	이형숙 권사			

4월	1부 영접위원	박미영 권미정
	1부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이민범 박석희 이증자 조항미 오자영 이현순
	2부 헌금위원	하현철 권미숙

믿음으로 읽는 글

바다는 바다다

- 헨리 나우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을 생각합니다.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다는 바다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바다이십니다. 비록 제 감정에 많이 오르내림이 있고, 제 내면에서 자주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기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신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당신의 같으심은 바위의 같음이 아니라 신실한 연인의 같으심입니다. 당신 사랑 안에서 제가 생명을 얻었고, 당신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 있으며 마침내 당신 사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죄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으며, 실패의 순간도 있고 성공의 순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당신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오, 사랑과 선함의 바다이신 주님,
제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폭풍이나 바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바다에 썰물과 밀물이 있지만, 바다는 바다임을 잊지 말게 하십시오.

• 헨리 나우웬(1932-1996)은 사제이자 유명한 저술가이다. 깊은 명상 기도를 바탕으로 사회 선교를 활발히 실천함으로써 현대 영성계에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기적 위에 또 하나의 기적을

- 작자 미상(켈트족)

주님, 저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붉은 피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제 마음도 희게 해주십시오.
해를 빛나게 하고,
얼음을 반짝거리게 하고,
강을 흐르게 하고,
연어를 뛰어오르게 하는 이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숨씨 좋은 손은
밤나무를 꽃피게 하고,
옥수수를 황금색으로 익게 합니다.
새의 노래와 별의 웅웅거리는 소리에
곡을 달아준 것도 바로 당신의 영이지요.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는
온통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기적 위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켜
제 영혼을 아름답게 빔어 주십시오.

• 켈트족은 아일랜드에 살던 토착민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토착화시켰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와 식물 안에 있는 신성한 영을 기렸다. 그들이 남긴 기도문은 오늘날 생태 영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 고진하 엮음, 「기도필사」(지혜의샘) 중에서